



감할 수 있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”며 “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 말했다.

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은 “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”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.

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해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,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 회장 당선인과 사회복지 단체 및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기본돌봄 실현과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에 대한 뜻을 모았다.

한편, 민주당 사회복지특위는 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부위원장,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발굴·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(끝)

※ 붙임: 토론회 기념사진

